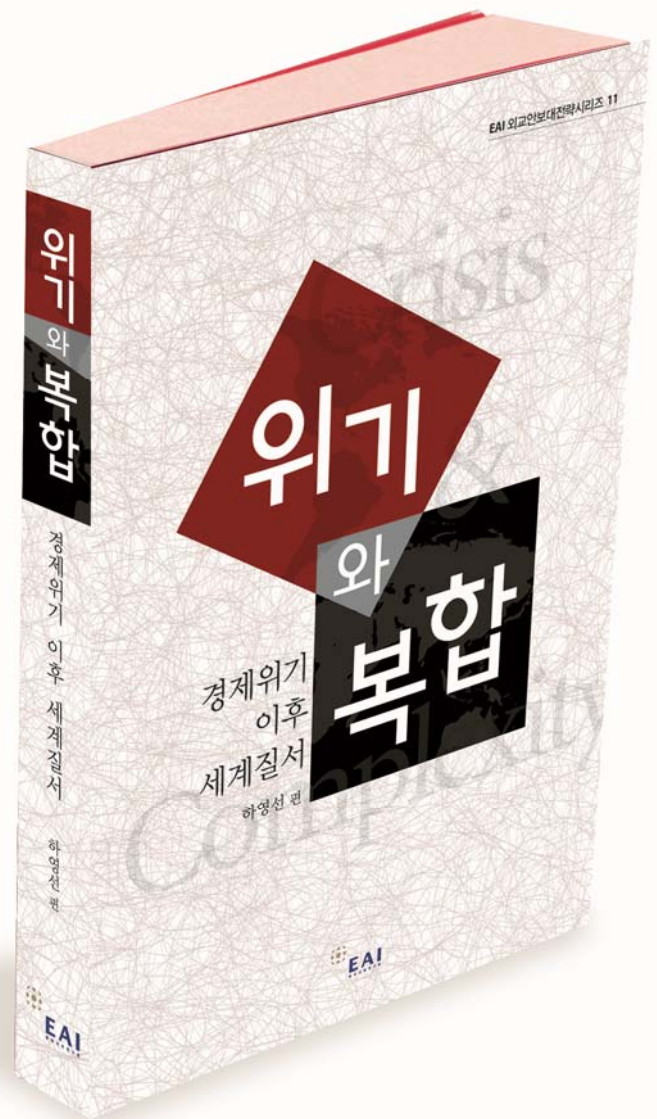


경제, 금융위기,
안보, 환경, 에너지 위기,
세계화와 다문화.
위기의 **세**계에 대처하는
복합 생존전략



위기와 복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 편저자_ 하영선
- 출판사_ (재) 동아시아연구원
- 발행일_ 2011년 9월 5일
- 가 격_ 16,000원
- ISBN 978-89-92395-17-5 93340
- 문 의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번지 삼풍빌딩 909호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세계경제위기와 미국과 중국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는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거대한 세계경제위기로 귀결되었다. 주요국들이 위기 탈출을 위하여 속속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계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그 충격의 강도는 컸으며, 또한 영향력도 광범위했다. 역사적 분수령으로 기록될 세계경제위기는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조망을 재촉한다.

위기 이후 세계정치 담론의 전면에 미국쇠퇴론과 중국부상론이 있다. 위기의 대응에 한계를 보여주었던 미국과는 달리 엄청난 외환보유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던 중국의 모습은 앞으로의 세계질서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편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메시지로 회자되었다. 세계경제위기를 가장 혹독하고 치열하게 겪은 것은 미국이다. 따라서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청사진도 미국에게는 국가의 운이 걸린 문제이다. 미국이 내놓고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은 다소 완화되고 협력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국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혹은 세계 정치의 주요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군사력, 경제력과 함께 문화력, 지식력 같은 소프트파워를 중시하며,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 균형력(power of balance)의 원칙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빠르게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된 중국은 현재의 1인당 4천 달러 경제에서 2020년대 1만 달러 경제로 성장하기까지는 당분간 선부(先富)국가론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밑받침 할 수 있도록 정치제도를 민주화하며, 동시에 근대적 국제화를 넘어 선 복합적 지구화의 안목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면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미국의 뒤를 이어 신세계질서 재건축의 설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이상적 국가 표준, “복합력”을 키워야 한다

위기 이후 세계질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변모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인공, 무대, 연기의 복합화다. 미국과 중국의 G2로 상징되는 부국강병의 국제적 각축이 여전히 무대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무대 위의 국가와 비국가 주인공들이 그물망으로 엮여져서 군사와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환경, 기술지식, 통치의 무대에서 새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 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과 새롭게 도전하는 중국이 현재 보여주는 비대칭 공동 주연의 새로운 변화 여부는 복합력의 확보에 달려 있다. 이제 국가는 과거처럼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의존해서만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소프트파워라 일컬어지는 문화적 매력이 국력의 핵심 자원으로 등장했지만 그것을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국제정치의 무대에 국가와 비국가 등 여러 행위자들이 등장하고 그 역할 또한 다채로워지면서,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무대 또한 다면화됨에 따라,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합력의 확보가 21세기 이상적 국력의 표준이 되었다. “[군사력, 경제력, 생태균형력, 문화력]€지식력€통치력”으로 요약할 수 있는 21세기의 복합력이라는 새로운 문명표준에서 보면 두 국가 중 누가 더 복합력을 효율적으로 강화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 속에서 새로운 생존번영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주인공들은 본격적인 복합화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로운 도전, 2중의 복잡화

국력의 새로운 지표로서 복잡력을 키워야 하는 과제와 함께, 동아시아 국가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바로 “2중의 복잡화”의 요구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근간을 이루었던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는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의 제국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유럽식 근대성의 도전을 받게 되었다.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에 무참히 패배한 동아시아는 강제된 근대성의 요구에 따라 유럽식 근대국제질서를 지역에 이식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지난 100여 년 동안 동아시아는 국가의 절대적 주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 국제질서의 논리를 익히는 데 주력해야 했다.

21세기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복잡의 국제질서를 수용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 그리고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얹히고 설키면서 궁극의 생존과 번영을 달성해야 하는 복잡 세계질서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경제와 정치의 통합을 꿈꾸며 다양한 실험을 해 오면서 교류와 협력으로 중층적 그물망으로 촘촘히 연결된 유럽에 비교해 동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늦은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위기 후 동아시아 질서는 21세기 복잡세계질서라는 새로운 문명표준을 따라잡아야 하는 동시에, 복잡세계질서와 근대국제질서의 복잡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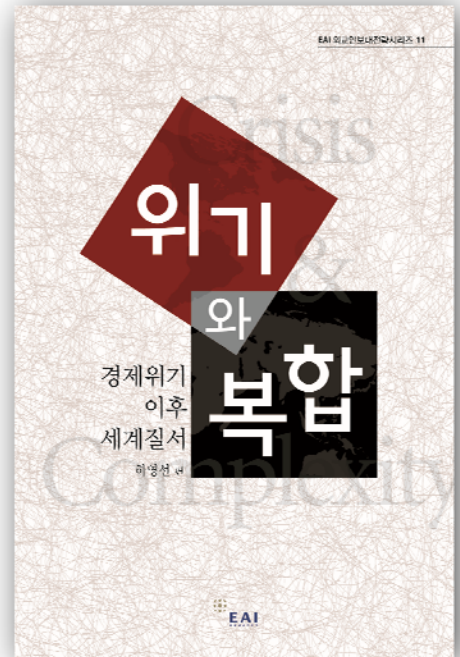
《위기와 복잡: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세계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본격적으로 몰려 올 무렵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국가안보패널은 함께 모여서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대비책을 토론하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위기 이후 세계질서는 탈냉전 이후 진행되고 있는 문명사적 변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었다. 이에 2009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국가안보패널의 연구진들이 모여 진행한 집단 토론과 연구의 결과를 묶어 출간하게 된 단행본이 《위기와 복잡: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이다. EAI 국가안보패널에 소속된 학자 총 11인이 참여한 이 책은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주인공, 무대, 연기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한반도가 자리잡고 있는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 동아시아의 안보, 경제, 환경, 문화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관계와 다른 지역국가들의 협력과 갈등을 조명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진행되는 미중 간의 세계질서 재건축 경쟁 구도 사이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기민한 대응이 절실하다. 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모습을 복잡의 시각에서 그려낸 본 연구가 향후 10년 한국의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 1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 군사안보질서 변화
_미국의 대응과 안보적 함의 | 이상현
- 2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군사안보 질서 전망 | 고봉준
- 3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화 | 황지환
- 4장 복합 네트워크의 시기
_세계금융위기와 경제 거버넌스의 변화 | 김치욱
- 5장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 | 손 열
- 6장 세계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금융 거버넌스 | 이승주
- 7장 국제 에너지 거버넌스의 변화 | 이재승
- 8장 탈위기 지구질서와 환경의 국제정치
_기후변화대응체제의 현재와 미래 | 신범식
- 9장 21세기 세계 문화질서 | 김준석
- 10장 지구화 과정과 문화 영역의 변환
_시민권, 다문화주의, 종교 | 박성우



필자소개

김준석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문으로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의 역사적 재조명 : 미국,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유럽연합”, “규범권력과 유럽연합”, “유럽정체성의 규범적 기초” 등이 있다.

마상윤 |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및 국제교류처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마친 후 영국 옥스포드대학교에서 1960년대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국내정치 개입에 대한 연구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구분야는 미국외교정책, 한미관계, 냉전외교사이며, 최근에는 미국의 동맹관계를 비교 관점에서 고찰하기 위해 부시-블레어 시기의 미영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Alliance for Self-reliance: ROK-US Security Relations, 1968-71,”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 “From ‘March North’ to Nation-building: Interplay of US Policy and South Korean Politics during the Early 1960s,” “데탕트기의 한미갈등 : 닉슨, 카터와 박정희”(공저) 등이 있다.

손 열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미국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교 외국인연구원, 와세다대학교 객원교수를 역임하였다. 연구분야는 일본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동아시아 지역주의이며, 최근 저술로는 “동아시아 경합하는 국제사회구상”, “소프트파워의 정치: 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Japan Between Alliance and Community,”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Shock, Universal Values and East Asian Community” 등이 있다.

신범식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모스크바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슬라브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러시아 외교정책과 유라시아 국제관계이다. 주요 논저로는 《21세기 유라시아도전과 국제관계》, 《러시아의 선택: 탈소비에트 체제전환과 국가·시장·사회의 변화》(공저), *Russian Nonproliferation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공저), “Russia’s Perspectives 390 on International Politics” 등이 있다.

신성호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신성호 교수는 미국 터프츠대학교 플레처스쿨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 국방부 아태안보연구소(APCSS) 연구교수, 미국 부르킹스연구소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워싱턴 East West Center 객원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안보와 국가전략, 한미동맹과 한반도, 인구변화와 동북아 국제정치 등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Demographic Peace: Decreasing and Aging Population and Its Impact on Northeast Asian Security”, “A Smart Alliance in the Age of Complexity: ROK-US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부시와 오바마: ‘핵 테러’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등이 있다.

이동선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카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소재 East West Center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안보와 국제관계이론이다. 저서로는 *Power Shifts, Strategy, and War* 가 있으며, 주요 학술논문으로는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Stability of East Asia”, “Democratization and Alliance Policy: A Comparison of Taiwan and the Philippines” 등이 있다.

이상현 |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이상현 박사는 미국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국제관계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국제정치와 안보, 한미관계, 북한 문제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논저로는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공저), 《지식질서와 동아시아: 정보화시대 세계정치의 변환》(공저),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공저), 《한미동맹의 변환》(공저),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The Vision of ‘Global Korea’ and Its Challenges”, “오바마 행정부 외교안보와 대북정책 전망”, 《외교환경과 한반도》(공저), 《조정기의 한미동맹: 2003-2008》(공저) 등이 있다.

인남식 | 외교통상부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중동 이슬람 지역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았고 영국 더럼대학교(University of Durham)에서 중동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외에도 카이로 알아흐람(Al-Ahram) 신문사 정치전략연구소(Centre For Political Science and Strategic Studies)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다. 주요 저서는 《국제분쟁의 이해》,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의 전망과 함의》 외 다수가 있고 연구분야는 중동정치 및 테러리즘이다. 최근 논문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평화협정”, “세계평화지수를 통해 본 미-이-팔관계” 등이 있다.

전재성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전재성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자주외교 연구”, “강대국의 부상과 대응 메커니즘: 이론적 분석과 유럽의 사례”, “유럽의 국제정치적 근대 출현에 관한 이론적 연구”,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탈근대론과 현실주의의 비판 고찰” 등이 있다.

조영남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조영남 교수는 1999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중국 북경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 중국 남개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를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 정치개혁과 전국인대》, 《중국 의회정치의 발전》,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 Development and Transition*, 《21세기 중국이 가는 길》 등이 있다. 최근에는 주로 중국의 의회제도, 법치(法治), 국가-사회관계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하영선 |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프린스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초청연구원,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조선일보의 객원 논설위원, 한국평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하영선 교수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아시아연구원 지구넷21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편저서로는 《국제화와 세계화: 한국, 중국, 일본 사이버 공간의 세계정치》, 《21세기 평화학》, 《21세기 한반도 백년대계: 부강국가를 넘어서 지식국가로》, 《변화하는 세계 바로 보기》,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동아시아공동체》 등이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소개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은 2002년 5월 설립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EAI는 다양성, 관용, 책임감, 투명성을 담보하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는 설립 이래 건전한 지식을 생산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내외 학자들과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산재한 지식들이 EAI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변화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의 그물망을 짜고 변화의 추진차로서의 역할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지식의 자양분으로 싹을 틔우고 세상이 그것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AI의 변함없는 목적이자 역할입니다.

EAI는 독립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핵심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포럼, 교육,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AI의 연구활동은 외교안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5개 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국가적 현안 및 사회이슈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한 발 앞선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EAI 연구팀은 이론과 정책 그리고 민의가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된 국내외 학자와 정책전문가로 구성됩니다. 또한 EAI는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등 해외 싱크탱크와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식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AI는 연구활동의 성과를 단행본,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워킹페이퍼, 이슈브리핑 등의 보고서를 통해 발표하고 미디어를 통한 지식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와 포럼 그리고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각 분야의 학자와 전문가들 간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전략과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1. 21세기 한국외교 대전략: 그물망국가 건설
2. 한미동맹의 비전과 과제
3.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4. 2020 중국 리스크: 중국경제 중장기예측과 리스크분석
5. 변환시대의 한미 안보협력: 미래를 향한 지휘관계 재건축
6.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7. 21세기 신동맹: 냉전에서 북합으로
8. 북한 2032: 선진화로 가는 공진전략
9.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글로벌 슈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10.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11. 위기와 북합: 경제위기 이후 세계질서

EAI 민주대전략시리즈

1. 대통령의 성공조건 I: 역할·권한·책임
2. 대통령의 성공조건 II: 회고와 제언
3. 정치개혁의 성공조건: 권력투쟁에서 정책경쟁으로
4. 정치개혁과 국회개혁: 현장에서의 회고와 전망
5. 국회의 성공조건: 윤리와 정책
6. 경제를 살리는 민주주의
7. 분권헌법: 선진화로 가는 길
8.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
9.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
10.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

EAI 여론분석시리즈

1.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국민여론·소수정부·정책선택
2.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
3.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패널조사를 통해 본 5·31 지방선거
4.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2: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07 대선
5.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패널조사를 통해 본 18대 국회의원선거
6.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7.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EAI 영문서적

1. *Between Compliance and Conflict: East Asia, Latin America, and the "New" Pax Americana*
2.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3. *Party Politics in East Asia: Citizens, Elections, and Democratic Development*
4. *Collective Violence in Indonesia*
5.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
6. *The Park Chung Hee Era: The Transformation of South Korea*

EAI 영문저널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SSCI 등재지) 2001-

EAI에서 발간하는 각종 보고서는 EAI 홈페이지(www.ea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